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 발간

- 장기추적조사시스템 내 eCRF 사용·설계 방법을 사용자 관점에서 쉽게 안내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와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한국 의약품안전관리원)(원장 손수정)는 ‘첨단바이오의약품 장기추적조사시스템’ 내 구축된 전자증례기록서(eCRF)*의 사용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하여 ‘전자증례기록서(eCRF) 길라잡이’를 6월 26일 발간·배포했다고 밝혔다.

* 전자증례기록서(eCRF, Electronic Case Report Form): 환자별로 계획서에서 요구한 정보를 기록하여 의뢰자에게 전달할 목적으로 작성된 전자문서

첨단바이오의약품은 특성상 투여받은 환자의 안전을 위해 투여 후 장기간에 걸쳐 이상사례 발생 여부의 추적 조사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장기추적조사 수행을 돕기 위해 eCRF가 활용된다.

그동안 eCRF 설계의 복잡성, 전문지식 부족 등으로 업계에서는 사용이 어려워 외부기관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식약처는 ‘식의약 안심 50대 과제**’의 일환으로 업계의 이해도 제고 및 부담 완화를 위해 장기추적조사시스템 내 구축된 eCRF의 사용 및 설계 방법을 사용자 관점에서 쉽게 안내하고자 이번 길라잡이를 마련했다.

* ‘첨단바이오 장기추적조사로 임상부터 허가까지 빈틈없는 환자안전’ 과제

길라잡이의 주요 내용은 ▲장기추적조사 제도 및 eCRF 운영체계 등 시스템 사용법 안내 ▲eCRF에 필요한 정보 입력 및 과제별 권한 설정 방법 ▲수집항목, 이상사례, 병용약물 코딩 등 eCRF 설계 방법이다.

식약처는 이번 길라잡이 발간으로 장기추적조사 수행 시 업계가 eCRF를 직접 설계할 수 있게 함으로써, 업계의 업무 및 비용 부담이 완화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산업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지침서를 제공하여 첨단바이오의약품 업계의 성장을 지원하고,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홍보물자료 → 일반홍보물’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누리집(ltfu.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담당 부서	바이오생약국 첨단바이오의약품TF	책임자	팀 장	임상우 (043-719-3316)
		담당자	연구관	서지숙 (043-719-3331)
담당 부서	첨단바이오의약품 규제과학센터 첨단바이오규제과학팀	책임자	팀 장	이연금 (02-2172-6765)
		담당자	대 리	황태경 (02-2172-6806)

